

진정한 푸른숲선도원이 되어

- 대구청란여자중학교

8월 9일, 나는 푸른숲선도원으로 숲 체험을 떠난다는 것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며 충북 청원에 있는 미동산 수목원 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에게 둘러싸여 싱그러움을 풍기는 이곳은 한눈에 내 마음에 들어왔다. 여름을 노래하듯 우는 매미 소리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있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숲해설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미동산 수목원이 품고 있는 자연을 둘러보았다. 우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각 조에 20명 썩 12조로 나누어 행동했다. 나는 1조가 되어 숲해설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름다운 수목원의 곳곳을 보았다. 매일 매연냄새에 시끄러운 음악소리, 화색 건물들만 보던 나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보던 그때, 나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푸른숲선도원이라고 자부하던 내가 정작 숲에 있는,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식물, 곤충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동산에 있는 식물, 곤충들은 분명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도 많았는데 숲해설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식물, 곤충들에 대해 이름, 생김새, 유래등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자연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다는 것을 알게된 다음부터 자연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그곳에서 보니 더욱 맛있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무궁화 노거수가 있지 않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손사들이 우리 민족성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모두 뽑아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잘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연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다니기는 했지만 자연을 볼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내가 정말 진정한 푸른숲선도원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았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푸른숲선도원으로서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글 / 이슬이

대구청란여자중학교 푸른숲선도원 숲체험교실

- + 일시 2006년 8월 9일
- + 장소 미동산수목원 상수 허브랜드
- + 총참가 인원수 40명
- + 진행방향 및 상세 교육내용
 - 1) 곤충과 파충류에 대한 전문강사 해설
 - 2) 숲전원 강사에 의한 유전자 보존원 현장 학습
 - 3) 숲속에서 나무목걸이 만들기 체험
 - 4) 내다수종 및 습지생태 현장학습
 - 5) 허브농장에서 여러 허브의 특징과 기능 파악 및 독특한 맛과 향 체험



- ▲▲▲ 생습지원
- ▲▲ 매미동충하초, 노린재동충하초를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 ▲ 숲속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
- ◀ 미동산수목원 숲체험에 앞서 한컷!

꿈에 그리던 계룡산 탐방

- 백제중학교



계룡산 국립공원 숲과 계곡

뜨거웠던 날씨 덕분에 더욱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계곡과 숲.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흙냄새, 나무냄새를 맡으며 산을 오르며 자연을 체험한 소중한 기억.

부쩍 마음을 안고 아침에 학교 길에 올랐다. 산림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나무들과 곤충들이 우리들의 눈을 허없이 초롱거리게 하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식물들과 동물들이 단지 사람이 아닌 하찮은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한 숲은 사냥의 명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숲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며 행복한 곳인지 알려주고 싶고 이곳을 추천해 주고 싶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곤충이나 식물들 하찮게 생각한 적이 정말 많다. 단지 작고 나부터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다. 식물과 동물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텐데... 알면서 느끼면서 실천하지 못한 점이 부끄러웠다. 뒷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과방아깨비도 보고 매뚜기도 본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꿈에 그리던 계룡산 국립공원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우리를 반겨주는 시원한 그늘과 계곡이 있었다. 새소리, 바람소리와 흙냄새, 나무냄새를 맡으며 계곡에 도착하였고 우리는 그곳에서 학생, 선생님,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즐겁게 놀 수 있었다. 줄기가 길게 뻗은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며 생명을 몸소 느끼노라면 그 어느 순간보다 즐거웠다.

글 / 전민욱

백제중학교 푸른숲선도원 숲체험교실

- + 일시 2006년 8월 4일
- + 장소 금강 자연 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계룡산국립공원 등
- + 총 참가 인원수 37명
- + 진행방법 및 상세 교육 내용

- 1) 백제 역사문화관
 - 문화 해설사의 설명 및 백제문화 전승교육
- 2) 금강 자연 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 자연 휴양림 체험 각 기후대별 수종 특징 및 숲과 동물 학습
 - 산림지원의 특성과 혜택, 충남 지역의 거목 학습
- 3) 무령왕릉
 - 무령왕릉의 특징 및 출토 유물 학습
- 4) 계룡산 국립공원
 - 천연고찰 갑사의 문화유물과 주변 숲 체험
 - 갑사 자연관찰로 체험 및 자연보호

+ 푸른숲선도원 숲체험교실은 한그루녹색회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올 한해 전국 40개교에 80여만원씩 푸른숲선도원 숲 체험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